

과체중에 理中湯을 사용한 1례

박 윤 희

푸른한의원

Lizhong-tang on Over Weight Syndrome : A Case Report

Yun-Hee Park, O.M.D.

Purun Oriental Clinic

Diet-control has had an important role in cases of over weight syndrome and obesity, but in the most of the cases diet-control hasn't been successful. In view of oriental medicine, those were regarded as deficiency syndrome. Recently I experienced a 41 years old woman who had arthralgia with over weight and whose condition was improved through Lizhong-tang used insufficiency of the spleen-yang.

Key Words : Over weight syndrome, deficiency syndrome, Lizhong-tang

I. 緒 論

단순성 비만과 과체중의 치료에 있어서 식사조절이 중요하나 식사제한을 견디내지 못하여 체중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虛證인 경우다. 저자는 虛證 과체중의 한 예에 理中湯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유의성이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증 례

1. 성 명 : 이○○, 여자, 41세
2. 가족력 : 불명확
3. 병 력
 - 키 160cm 몸무게 68Kg로 BMI는 27.

- 1981년 출산 뒤부터 서서히 체중이 증가하였으며 현재 견배부통과 항통, 슬관절통, 족관절통, 완관절통, 月經前 腰痛 등 통증 때문에 체중조절을 하려고 내원함. 운동은 하지 않고 식욕이 너무 좋아서 항상 허기가 지고 한끼라도 굶으면 하면 바로 어지럽고 손발이 떨려서 식사조절을 할 수 없었다고 함.

4. 치 료

- 위가 약해서 오는 식욕의 이상 항진을 목표로 한방의료보험약인 광동제약에서 생산한 理中湯엑스를 투여하기로 결정함.
- 2000.6.2 초진. 理中湯 7일분 투여
- 2000.6.9 허기가 감소, 통증은 비슷하였다. 理中湯 21일분 투여
- 2000.7.7 체중 68Kg. 허기는 감소, 생리전 요통이 감소. 나머지 상태는 비슷하다. 理中湯

- 30일분 투여
- 2000.8.11 체중 66.5Kg 전신 상태는 비슷. 理中湯 30일분 투여
 - 2000.9.19 체중 65Kg 견배부통 감소. 理中湯 30일분 투여
 - 2000.10.28 체중 64.5Kg 理中湯 30일분 투여
 - 2000.12.16 체중 65Kg 11.18 자궁경부암이 재발하여 레이저 치료를 받고 약물 투여 뒤 다시 허기가 지고 전신의 통증이 증가함

Ⅲ. 考 察

理中湯은 人蔘湯이라고도 하며(傷寒論)과 《金匱要略》의 처방으로(傷寒論·辨霍亂病脈證并治¹⁾의 “霍亂, 頭痛, 發熱, 身疼痛, 熱多欲飲水者, 五苓散主之. 寒多不飲水者, 理中丸主之.”과(傷寒論·辨陰陽易差後勞復病脈證并治¹⁾의 “大病差後, 喜唾, 久不了了, 胸上有寒, 當以丸藥溫之, 宜理中丸.”, 《金匱要略·胸痺心痛短氣病脈證第九》²⁾의 “胸痺, 心中痞, 留氣結在胸, 胸滿, 脇下逆搶心, 枳實薤白桂枝湯主之. 人蔘湯亦主之”에서와 같이 脾胃虛寒에 사용되는 처방이다.

理中湯에 대해서 矢數³⁾는 “太陰病으로서 裏(胃腸)가 虛하여 차갑고 水가 있는 것을 治한다. … 체질은 虛證이며 근육은 弛緩하고 貧血性으로 皮로하기 쉽다. … 위장 증상이 있는데 心下痞, 下利, 胃痛, 嘔吐가 있는 일도 있다. 맥은 연약하며 遲하고, 腹症은 복벽이 대체로 팽만한 자, 혹은 연약한 자도 있다.”고 하였으며 “주로 急性慢性위장염, 胃弱, 위하수증, 위확장증, 위액분비과다증, 위궤양, 惡阻, 蛔蟲, 下利, 小兒自家中毒의 예방 및 치료에 쓴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보면 虛證으로 무력성인 사람이 위 기능이 약할 때 쓰는 처방임을 알 수 있다.

약제의 용량은 《傷寒論》¹⁾과 《金匱要略》²⁾에서는 人蔘, 白朮, 炙甘草, 乾薑이 등분으로 되어 있으며 일

본에서는 矢數³⁾, 久保⁴⁾ 등이 모두 각각 3g씩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方藥合編》⁵⁾을 따라서 人蔘, 白朮, 炮乾薑 각 2錢, 炙甘草 1錢으로 하여 湯煎한 理中湯을 사용하고 있다.

한방의료보험⁶⁾에서는 1일분에 단미엑스산제로 인삼 8g, 백출 8g, 건강 4g, 감초 4g으로 하여 하루에 24g을 사용하는데 저자는 24g을 8g씩 3봉지로 나누어 하루에 3회 식후 30분-1시간 경에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게 하고 있다.

비만과 과체중에 식사요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理中湯의 적응증 환자들도 한 예라 할 수 있다. 理中湯證의 환자들은 피로를 쉽게 느끼고 허기도 심하고 한끼만 굶어도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기운이 쪽 빠져서 절대로 식사조절은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로가 심하여 운동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환자들은 문진시에도 식욕이 좋다고 대답하는데 소화는 잘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식욕은 좋은데 소화는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예도 있으며 설사나 변비에 관계없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저녁에 늦게 식사를 하고 자고나면 아침에 몸이 붓는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비만은 脾虛濕阻로 변증하여 防己黃芪湯⁷⁾이 주로 사용되나 필자는 한방의료보험약을 사용하기 위하여 理中湯을 써서 어느 정도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환자는 체중조절을 하려고 몇 번 식사제한을 하였으나 허기가 심하여 견디지 못했었는데 理中湯을 투여하고 나서부터 공복감이 없어지고 허기가 심하지 않아서 저절로 식사조절이 되어서 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도 체중이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치료에 대해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비록 체중의 급격한 감량은 없었으나 전체적인 몸의 상태는 좋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허증 비만으로 식욕이 이상 항진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단순히 식욕억제제만 사용하

지 않고 한의학의 장점인 “虛證” 개념을 활용하여 진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理中湯뿐 아니라 다른 비위에 작용하는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V. 要 約

비위의 허한증에 사용하는 理中湯을 비위허한증 환자에 사용하여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었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1. 張機. 傷寒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3:88-

98,92.

2. 張機. 金匱要略: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4:381.
3. 박종갑 역. 矢數道明 著. 漢方處方解說. 대구: 동양종합통신교육원출판부. 1978:469-470.
4. 김일혁 역. 久保道德, 谿忠人 公저. 漢方醫藥學. 서울: 동남출판사. 1985:369.
5. 황도연. 大方藥合編. 서울: 행림출판사. 1977:101-102.
6.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99년 11월판. 1999:111.
7. 陳貴廷, 楊思澍. 實用中西醫結合診斷治療學. 북경: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685-686.